KIA 올 성적 '젊은피' 최원준·김기훈에 달렸다

최 원 준

● 최원준

이범호 빠진 핫코너 책임져

타순 9번 공격 연결고리 맡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느껴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그리고 미래에 최원준과 김기훈이 있다.

KIA는 '명예 회복'을 외치며 새 시즌을 시작했지만 초반 행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개막날에는 답답한 타격에 승리가 막혔고, 제이콥 터너와 임기영이 초반에 일찍 무너지면서 패배가 이어졌다.

KIA는 올 시즌 성적과 함께 세대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사냥'의 키를 쥐고 있는 이가 바로 내야수 최원준과 투수 김기훈이다.

최원준은 베테랑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사이 기회의 시간을 얻었다.

핫코너에 선 최원준은 공·수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한다.

최원준은 개막 후 세 경기에서 좋은 슬라이딩 캐치도 보여줬지만, 실책도 하나 기록하는 등 기복을 보이고 있다. 타석에서는 9번 자리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지만, 앞선 세 경기의 성적은 9타수 2안타(타율 0.222) 1타점 1득점으로 부족했다. 베테랑 야수진에서 젊은피 최원준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지만 연패 기간 스피드를 과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최원준도 연패 기간 자신의 역할이 부족했던 게 아쉽다.

최원준은 "연습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며 "긴장되니까 몸이 경직돼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팀의 내로라하는 선배들과 나란히 라인업에 서서 경기하는 게 고졸 4년 차 최원준에게는 영광이지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됐다.

● 김기훈

'고졸 루키' 마운드 기대감

오늘 한화전 첫 선발 출격

직구 좋으나 제구 문제점 노출

마운드에서는 '고졸 루키' 김기훈에게 시선이 쏠린다.

KIA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선발진 구성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외국인 투수가 모두 교체됐고, 선발 후보였던 한승혁이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다.

출발도 좋지 못했다. 개막전을 책임진 양현종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타선의 외면 속에 패전투수가 됐고 터너와 임기영은 뭇매를 맞으면서 팀이 연패에 빠졌다. 올 시즌 KIA는 '젊은 마운드'로 표현할 수 있다. 1988년생 양현종을 최고참으로 해 신진 선수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힘은 좋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선발진의 안정이 우선이 된 상황인 만큼 28일 선발로 처음 출격하는 김기훈의 성적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4일 LG전 불펜 투수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김기훈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진짜 무대에서 만난 수준 높은 타자들과의 승부를 돌아봤다.

일단은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해야 한다. 캠프 연습 경기에서부터 김기훈은 제구 문제점을 노출했다. 쉽게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다. 제구 문제에도 김기훈 특유의 힘 있는 직구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훈이 자신의 약점보다 장점에 집중해 위기의 KIA 마운드에 희망을 선물해야 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 기 훈

덕아웃 T 톡톡

김민식, 안타 하나로 3타점 팀타점 1위…그래도 도루저지 욕심

▲그래도 도루 저지? = 안타 하나로 팀 타점 1위에 오른 김민식. 27일 한화와의 경기 전까지 세 경기를 치른 KIA는 생각보다 주춤했던 화력에 고전했다. 그래도 개막 후 두 경기에서 3득점에 그쳤던 타선은 26일 7점을 만들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기록된 7점 중 3점을 포수 김민식이 책임졌다. 그는 3회 2사 만루에서 싹쓸이 2루타를 터트리면서 단숨에 팀 타점 1위에 올랐다. 첫 안타를 3타점으로 연결했지만 김민식은 포수로의 책임감도 무겁다. 27일 훈련 시간에 "타점과 도루 저지 어떤 게 더 욕심나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민식은 한참을 고민한 뒤 도루 저지를 먼저 이야기했다. 김민식은 "팀이 이기고 있으면 도루저지? 아무래도 포수니까 도루 저지에 욕심이 많이난다. 도루를 잡아낼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웃었다.

▲생각이 많은 것 같다 =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임기영의 2019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다. 지난 26일 한화전을 통해 시즌 첫 출격에 나선 임기영은 볼넷 하나를 내주기는 했지만 탈삼진 3개를 뽑아내면서 위력적인 1회를 보냈다. 하지만 2회와 3회 이성열에게 연달아 홈런을 맞는 등 4이닝 8피안타(3피홈런) 3볼넷 4탈삼진 8실점으로 부진했다. 김기태 감독은 "본인이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자신감으로 던지는 선수인데 지난해 아프면서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임기영의 공을 받은 김민식은 "공은 좋았는데 조금씩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공 자체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다음 등판에서의 호투를 기대했다.

▲똑같죠 = 경기 전 사람들의 눈길을 끈 '아버지' 김민호 타격 총괄 코치였다. 조 윌랜드가 선발로 나선 27일 상대팀 한화는 김성훈을 선발로 내세웠다. 고졸 3년 차 우완인 김성훈은 김민호 총괄 코치의 아들이다. 김 총괄코치는 이날 훈련 시간에 배팅볼 투수로 나서 야수들의 타격 훈련을 도왔다. 아들을 상대할 타자들에게 공을 던져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김 총괄코치는 "평소와 똑같다. 연관지으면 안된다"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신임 대표에 이화원 부사장

KIA 타이거즈가 신임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다.

KIA는 현대자동차그룹 인사에 따라 4월 1일 자로 현대모비스 홍보실장이었던 이화원(58)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KIA 타이거즈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강릉고와 강릉대를 졸업하고 1988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 신임 대표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신임대표는 현대기아차그룹 기획조정실과 경영혁신기획단, 경영관리단에서 근무했으며, 홍보기획팀장과 홍보1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현대모비스 홍보실장으로 재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함평서 부활 날개짓 박준표 "잘 준비해서 복귀하겠다"

KIA 초반 선발 난조…복귀 가시화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박준표가 다시 날개를 편다.

박준표는 올 시즌을 앞두고 KIA 마운드의 특별 전력으로 꼽혔다.

박준표는 경찰청에서 복무했던 지난해 평균자책점 2.37과 12승으로 북부리그 투수 부문 2관왕에 올랐다. 입대 전에도 불펜의 마당쇠로 역할을 했던 만큼 '전천후 투수'로 KIA 마운드 운영의 폭을 넓혀줄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즌 준비도 열심히 했다. 박준표는 친구 한승혁·문경찬과 부지런히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며 비시즌에도 땀을 흘렸다.

하지만 박준표는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가지 못했다.

건강 검진 결과 위에서 용종이 발견됐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예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두 차례 수술을 하느라 재활 시간이 길어졌다.

박준표는 어깨 통증으로 일찍 캠프에서 돌아온 윤석민, 내전근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한 한승혁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재활 훈련을 해왔다. 셋 중 가장 먼저 박준표가 피칭에 돌입했다.

박준표는 공 던지는 데 주력하며 복귀를 한 잰걸음을 걷게 됐다.

박준표는 "처음 검진 결과를 듣고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시즌이 끝나면 할 생각이었다. 수술 전날에도 경기장에 나가서 훈련했다. 그만큼 많이 아쉬웠다"며 지난겨울을 이야기했다.

열심히 잘 준비했기에 더 아쉬웠던 시간이었지만, 박준표는 차분하게 시즌을 기다리겠다는 마음이다.

박준표는 "지금 운동 잘하고 있다. 훈련은 100% 컨디션으로 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는다. 다시 공을 던지게 돼서 설렌다.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내 할 것 하면서 내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입단 후 처음으로 경기장 기둥에 장식된 대형 선수 프로필 사진에 내 사진이 붙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다.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다. 마운드에서도 꼭 좋은 모습 보일 수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첫 골' 손흥민 "팀원 덕분에 골 넣어 기뻐"

콜롬비아와 평가전 2-1 승리 이끌어

오랜 침묵 끝에 '벤투호 첫 골'을 기록한 손흥민(토트넘)은 기쁜 마음보다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컸다.

손흥민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려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 이어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16분 황의조(감바 오사카)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콜롬비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이후 A매치에서 골이 없던 손흥민은 9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골에 대한 소감을 묻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답이 먼저 돌아왔다.

그는 "대표팀에서 자꾸 나의 이름만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코치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든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어 "팀원들이 나를 믿어주고,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골을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골은 내가 넣었지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없었다면 오늘 경기 골도 없었을 것"이라고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지난 2017년 수원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콜롬비아를 상대로 2골을 몰아쳐 2-1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은 2년 만에 다시 만난 콜롬비아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으며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날 콜롬비아에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는 다빈손 산체스(토트넘)가 출전해 손흥민을 막았다. 경기 중반 산체스의 거친 몸싸움에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쓰러지기도 했다. /연합뉴스